

'비상계엄령 선포' 규탄 상경 투쟁 농촌 학생 통학택시 운영 '호응'

임실군의회, “자유민주주의 가치 · 국민 권리마저 저버린 대통령 강력 규탄”

임실군의회(의장 장종민)는 4일 새벽, 긴급 의원간담회를 소집하여 전날 3일 오후 10시 23분경 발표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를 규탄하고, 군의회 의원 전원이 서울 국회로 향했다.

임실군의회는 지난 11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제342회 제2차 정례회가 기간중이며, 11월 27일 수요일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12월 5일부터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시작될 예정으로, 임실군의회 의사일정에 차질은 없을 예정이다.

장종민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누구를 위한 계엄령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법 절차도,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국민의 권리마저 저버린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하고, 군민



임실군의회는 4일 새벽, 긴급 의원간담회를 소집하여 전날 3일 오후 10시 23분경 발표된 윤석열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를 규탄하고, 군의회 의원 전원이 서울 국회로 향했다.

들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하기 위해 상경하는 만큼 군민 여러분께서는 동요하

지 마시고 생업에 종사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임실=전충영 기자

의료취약지 원격 협진 ‘빛났다’

남원시, 전국 우수기관 선정...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남원시는 4일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4년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사업 성과공유대회'에서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사업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 사업은 2024년 신규 사업으로, 지리적 취약성과 거동·교통의 불편성으로 인해 의료 이용 접근이 저하된 거동 불편자 및 독거노인 등 만성질환자 재진 환자에게 면 지역 공공보건사의 방문간호사 간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 환자는 보건지소에 나오지 않고 방문간호사가 직접 대상자의 집을 방문하여 활력징후를 체크하고, 공공보건사의 화상 장비를 연결하여 환자 상태를 자문·진료·처방, 복약지도 등 통합적인 가정방문 서비

스를 제공받게 된다. 특히 우수사례로서 대강면 지역의 경우 서비스에 대한 보호자들의 호응이 높아지고 있고, 원격협진을 이용하는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경증 치매가 있는 대상자분이 약을 제대로 먹고 있지 않아 약이 많이 남아 있는 사례를 모니터링하여 보호자에게 연락해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가족들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있는 측면에서 보호자들의 호응과 찬사를 받고 있다.

현재 의약분업 지역을 제외한 전 보건지소에서 실시 중이며, 5월 20일 사업 첫 시행 이후부터 59명의 환자에게 277건의 원격협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5년에도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10월 보건복지부에 공모를 완료하였으며, 성과를 인정받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방문전담간호사 2명) 인건비를 자체 시비 확보했다.

한편 최민자 보건지원과장은 “지역에서 원격협진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의료접근성 제고, 취약계층 건강관리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 발효미생물산업화센터 개소 3주년 고객사 초청 행사 가져

순창군 재단법인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이사장 최영일)이 운영하는 발효미생물산업화센터가 개소 3주년을 맞아 고객사를 초청해 소통과 협력의 장을 마련했다.

행사는 그간의 성과와 활동을 공유하고, 올해 10월 새롭게 문을 연 유용미생물은행의 인프라와 기능을 소개함으로써 미래 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에는 약 100여개의 고객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루었으며, 이들 고객사는 그린바이오산업체와 전통발효식품 제조기업으로 구성되어 발효미생물 기반의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200여 기업 중 선도적인 업체들이다.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로 진행된 심포지엄에서는 ‘그린바이오 토착미생물 기반 기업 간 협력과 상생’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산·연 협력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조성호 발효미생물산업화센터장이 발표를 맡아 센터의 주요 역할과 기능을 소개하며 심포지엄의 문을 열었고, 이어 막걸리 산업의 발전, 건강기능성 소재의 발효육용의 개발, 곡물효소를 활용한 산업화 방안, 대규모 생산 기술 혁신 등 발효미생물 기술과 산업 발전의 다양한 사례가 차례로 다뤄졌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중 · 고등학생 통학 여건 개선... 성공 정책 호평

임실군이 올해로 10년째 운영 중인 농촌지역 중 ·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통학택시 지원사업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큰 호응 속에 성공적인 정책이라는 호평을 받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통학택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농촌지역 중 · 고등학생들의 통학 여건을 크게 개선하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통학택시 지원사업은 집과 학교 간 거리가 2km 이상, 버스 정류장에서 집까지의 거리가 1km 이상, 혹은 등하교 시간에 노선버스가 없는 지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용 요금은 1회 500원으로 책정됐으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학생들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중학생 110명, 고등학생 74명이 지원받은 데 이어 하반기에는 중학생 115명, 고등학생 76명 등 총 191명이 이용했다.

군은 2025년 상반기 통학택시 운영을 위해 오는 9일부터 24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심 민 군수는 “해마다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등·하교 교통 불편 해소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지역 택시업계 경영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을 통해 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전충영 기자

남원농기센터, 농기계 임대사업 '대상' 수상

남원시농업기술센터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농기계 산업발전과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3일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전국 147개 전국임대사업소 중 단 3곳만이 선정되는 영예로운 결과로, 남원시의 농기계 분야의 농업 정책과 성과가 전국적으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남원시농업기술센터는 이번 수상으로 2024년 우수 인센티브 1억5천만원을 받게 되며, 2020~2022년 3년 동안 최우수로 각각 1억씩 총 인센티브 3억원, 2023년 우수 인센티브로 7,500만원을 받는 등 꾸준히 농업 발전을 위한 공로를 인정받은 바 있다.

실제 남원시는 농기계 임대사업과 농업 안전 교육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농업인의 생산성과 안전을 높이



는데 앞장서 왔으며, 올해 임대 실적만 24,000건, 운송 지원 900건에 달하는 등 임대 사업

을 통해 거둔 세수입은 2억1천만 원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 지원 모델을 제시했다.

또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 안전교육을 30회(1,800명)의 실시했으며, 드론 및 특수농기계 자격증 취득 교육 등 첨단 농업 기술 교육을 통해 매년 실시 942명 전문 농업인을 양성하고, 4개소 임대사업소를 운영하며 105종 1,429대의 다양한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어, 지역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농업 기계화를 지원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보건소, 장내기생충퇴치사업 우수기관 선정

남원시보건소가 지난 3일 2024년 장내기생충질환 대상 위험지역 주민 조사사업 평가대회에서 장내기생충퇴치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 유공기관 표창을 받았다.

남원시는 지역적으로 삼진강과 요천 유역의 여건으로 민물고기 생식 습관이 높은 것으로 예측되는 지역과 과거 기생충 양성자 다발생 지역의 주민, 민물고기 생식 경험이 있는 시민을 대

상으로 연중 조기 검사와 치료를 진행하여 장내기생충 퇴치를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했다.

또한 관내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장내기생충 퇴치사업을 수행해 보건소 및 40개지소, 진료소에서 대상자 대변을 채집하고 확인하여 511명을 검사한바 간흡충 7명, 장흡충 4명, 편충 1명으로 12건의 양성 판정을 받아 치료 및 관리를 진행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 통

순창 장애인체육상 시상식 가져

순창군 장애인체육회(회장 최영일)는 지난 3일 장애인체육관에서 2024년 순창 장애인체육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최영일 순창군수를 비롯해 순종석 순창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남상길 교육장, 손승호 체육회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장애인체육회 임·직원, 종목별 임원과 선수 등 150여명이 참석해 수상자를 축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시상식은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개회, 내빈소개, 학생선수 장학금 시상, 유공자 시상, 기념사, 축사 순으로 이어졌다.

시상은 최우수종목상에 육상(감독 이성준), 우수종목상에 톤볼(감독 정영호), 최우수선수상 주흥현(톤볼), 우수선수상 한태희(육상), 지도상 김건태(태권도), 공로상 로템나무, 봉사상 이정남, 회장상 김현동(골볼), 군수상 박미숙(육상), 의장상 이경자(보치아), 교육장상 김덕현(육상) 등 11개 분야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 선정

남원시가 행정안전부 주관해 선정하는 2024년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2017년 국민행복민원실로 최초 인증된 후 2021년에 이어 3번째다.

국민행복민원실은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 시·도 교육청, 국제청 등을 대상으로 민원인이 경험하는 민원실 내·외부 안전환경, 민원 행정 서비스, 체험·민족도 분야에서 4단계의 심사과정을 거쳐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남원시는 △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유아동반 민원을 위한 우선 배려창구 운영 △다양한 높이의 민원서식대 설치 △에어컨 및 저시력자를 위한 큰글자 도서 구입 △점자 음성 청사안내 시스템 및 민원창구 안내 촉지도를 제작 △목욕 야간 민원실 △24시간 자동응답 시스템 챗봇 '민원톡톡' △찾아가는 지적민원 접수 △무인민원발급기 전염병동 확대 및 수수료 무료 운영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형회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인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 · 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여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 · 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뒷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구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글=문화재청 제공>